

광주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국비 등 350억 투입 복합허브센터 조성

생산유발효과 2조원·1만6000여 명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기대

광주시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으로 광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테이션G,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의 기업혁신성장센터에 이어 이번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의 복합허브센터까지 총 3개의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명실상부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킹스크로 스카이를 벤치마킹해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 거점 사업이다. 국비 14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창업기업의 R&D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



역 일원에 규모·체계화된 광주형 창업생태계를 집적시키고 정부 그린-디지털 신산업 육성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주력산업인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바이오, 인공지능(AI) 등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일원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기 창업

허브센터' ▲창업클러스터 근로자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연계형주택'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복합허브센터'는 에너지, 의료 및 웰스케어, 인공지능(AI) 등 타겟산업별 총 30개의 유망기술창업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며, 한전 등 지역 내외 기관(분원) 및 기업 부설연구소를 입주시켜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 등 기존 협력기관은 물론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력,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바이오, 인공지능(AI)를 핵심 육성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사업계획과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윤섭 광주시장은 "광주역 일원의 창업 지원 인프라 사업은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전환과 우리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면서 "뛰어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든든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임차임대인 위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공모

광주 동구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영입할 수 있도록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광주 자치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은 등지내몰림(센터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동구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건물주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을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1천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서구, 실시간 '차량등록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광주 서구가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의 대기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 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민원실 순번대기 데이터를 내부 행정망으로 모아서 구 홈페이지로 정보를 송출하는 프로세스로써, 차량등록 민원실의 실시간 대기현황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방문 일정 분산을 유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차량등록 일반 민원, 차량등록 대행 및 상사, 변경등록 및 번호판 재교부, 이륜차 증명, 자동차 말소 및 처당,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건설기계 및 조종사 등 7개의 민원서비스 창구의 순번대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출한다.

남구 주민들, 사고·재난 피해시 '보험 혜택'

광주 남구는 관내 주민들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

남구는 13일 '화재 사고 등 매년 예기치 않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은 폭발과 붕괴, 화재, 산사태, 물놀이, 온열질환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외에 일정 정도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북구,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자산형성 지원

광주 북구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한 제도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종 저축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통장별 가입자는 3년 동안 5만 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에는 본인 저축액,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면 720만 원~281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고려인 역사 매개 소통' 광산구, 고려인문화관 개관

고려인 마을이 있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고려인들의 삶과 역사, 문화를 담은 문화관이 문을 연다.

광주 광산구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조성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 개관식을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곡고려인문화관은 국내 최초 고려인 역사·문화 전시·기록관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총 13억 원을 들여 고려인 역사를 테마로 한 선·이주민 간 소통공간을 고려인마을에 조성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리모델링이 최근 마무리됐다.

김치업계 대·중·소 상생 'EU 수출 탄력'...전년비 54% ↑

세계김치연구소, 대상㈜·CJ제일제당㈜과 맞손



인증 젓갈 공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13일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EU 김치 수출액은 803만 달러로 전체 수출 시장의 5% 수준에 불과하나, 한류와

하지만, 최근 EU 수입규정이 개정돼 동물성 원료가 극미량이라도 포함된 복합식품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원료 제조시설의 EU 수출작업장 등록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김치의 경우 동물성 원료인 젓갈을 사용하기 때문에 EU로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는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치용 젓갈에 대한 EU수출작업장 등록이 완료된 업체는 대상과 CJ제일제당 단 2곳 뿐이어서 중소김치제조업체의 EU수출에 난항이 예상돼 왔다.

이에 세계김치연구소는 지난달 15일 김치제조업체와 젓갈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로 확보를 위한 첫 기술교류회를 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치제조사들은 대다수 젓갈업체가 영세하고, EU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 당분간은 앞서 인증된 대기업의 젓갈을 제공 받아 김치를 수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김치연구소로부터 비건 김치 레시피나 젓갈 대체소재 기술노하우를 전수받길 원했다.

이에 연구소 측은 EU 생산라인을 갖춘 대상과 CJ제일제당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에 EU 인증 젓갈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제안했고, 두 기업은 자사의 김치 수출을 위해 공들인 기술력과 시스템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세계김치연구소 최하중 소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EU시장 수출 수요를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세계김치연구소가 유럽연합(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중소김치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 CJ제일제당㈜과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한 EU 수출

코로나19 영향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EU 지역 김치 수출액은 전년보다 54% 이상 증가하는 등 김치 수출 신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액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240,833원	1,141,111원	4.74배
4분위	125,531원	217,111원	1.73배
3분위	79,147원	137,111원	1.73배
2분위	48,103원	84,111원	1.75배
1분위	26,897원	47,111원	1.75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제안한 슬로리펀딩이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